

# 멜로드라마의 성의 정치학

## -드라마 〈언니는 살아있다〉를 중심으로-

이름	송수빈
날짜	2018.11.26.(월)

〈목차〉

1. 들어가며-멜로드라마의 가부장적 이데올로기
2. 멜로드라마의 모성 신화와 낭만적 사랑
  - 2-1. 은향과 환승의 감정 묘사 방식
  - 2-2. 세경의 불륜과 용하의 모성에 박탈
  - 2-3. 들레와 필모의 사랑이 내포하는 남성주의적 시각
3. 나오며-멜로드라마를 비판적으로 수용해야 하는 이유

## 1. 멜로드라마의 가부장적 이데올로기

‘성의 정치’란 케이트 밀레트(Kate Millet)의 저서인 『성의 정치학(Sexual Politics)』에서 처음 등장한 용어이다. 밀레트는 성의 정치를 ‘지배적 성이 피지배적 성에 자신의 권력을 유지해 나가는 과정’이라고 정의했다. 가부장제가 굳건하게 뿌리내리고 있는 한국사회에서는 성의 정치의 기제로서 특히 ‘낭만적 사랑’과 ‘모성애’가 강조된다. 시대가 변화함에 따라 멜로드라마도 조금씩 바뀌고 있지만, 여전히 낭만적 사랑과 모성애를 배제한 내러티브는 찾기 힘들다. 멜로드라마의 주 소비층이 여성임에도 불구하고 멜로드라마는 지배 계층인 남성의 행위를 정당화하기 위한 수단으로 기능한다. 따라서 우리는 멜로드라마를 볼 때 개인의 감정에만 초점을 맞출 것이 아니라 인물들 간의 관계에 투영되는 그 시대의 모습까지 비판적으로 받아들이 필요가 있다.

멜로드라마에서 연인 관계는 대부분 남성이 여성보다 지위가 높다. 가부장적 사회에서는 남성이 연애에서 데이트 비용을 부담하고 결혼 후 가정을 부양하는 것이 당연하다. 오히려 여성이 비용을 지불하는 행위는 상대 남성에게 대한 호감이 없다는 것을 표현하는 행동으로 인식된다. 이러한 사고방식 때문에 여성이 결혼 후 전업주부가 되어 남성의 성취를 돕는 조력자로 머무는 것은 전혀 이상하지 않은 양상이 되어버렸다. 최근에는 여성도 사회에 진출할 수 있다는 인식이 확산되어, 여성도 사회에 나가 일을 하며 돈을 벌기 때문에 오직 남성만 가정 부양의 의무를 지지는 않는다. 반면에 아이를 키우는 역할은 오직 여성만이 분담하는데, 이것은 모성애가 ‘여성이라면 누구나 선천적으로 갖고 태어나는 성질’일 것이라는 잘못된 생각에서 비롯한다. 사실 모성애야말로 가부장적 사회에서 비롯된 최악의 이데올로기이다. 이 때문에 여성과 남성이 똑같이 일하는 맞벌이 부부임에도 불구하고 아이를 돌보는 일은 거의 항상 여성이 맡는다. 즉 가부장적 사회에서 연애와 결혼을 기제로 한 낭만적 사랑과 모성 신화는 남성이 여성을 지배하는 구조를 은폐하는 데 사용된다.

멜로드라마 〈언니는 살아있다〉는 사이코패스 스토커에게 위협당하는 한물간 배우 민들레, 불길에 휩싸인 집에 혼자 갇혀있는 어린 딸을 잃은 김은향, 신희여행 길에 교통사고로 신랑을 잃은 강하리의 연대와 복수의 서사이다. 이 드라마의 재미는 선역(善役)과 악역(惡役)의 주요 인물들이 모두 ‘여성’이라는 점에서 찾을 수 있다. 〈언니는 살아있다〉는 여성의 연대를 바탕으로 가족 멜로의 가부장적 이데올로기를 부수고 새로운 패러다임을 제시하는 것처럼 보였다. 그러나 이 드라마가 진정으로 여성들의 서

사를 주체적으로 그려냈는데에 대해서는 비판할 점이 많다. 예전에는 작가가 의도적으로 남성을 배제하거나 혹은 조력자의 역할에만 그치게 함으로써 여성 서사를 잘 담았다고 생각했다. 그런데 지금 와서 다시 생각해보니 <언니는 살아있다> 역시 철저하게 가부장적 이데올로기 안에서 여성들의 이야기를 전개했다. 표면적으로 <언니는 살아있다>는 주체적인 여성 인물들이 그려가는 자립 갱생이지만, 그 내면의 교묘한 가부장적 사회 구조는 여전하다. 여성을 중심으로 이야기를 그린다는 점에서는 기존의 멜로와 차별성을 보이니, 낭만적 사랑과 모성애를 강조한다는 점에서는 남성적 시각을 버리지 못했다. 다음은 <언니는 살아있다>에서 나타나는 가부장적 이데올로기가 낳은 모성 신화와 여성과 남성의 권력 관계를 은폐하는 낭만적 사랑에 대해 고찰한 것이다.

## 2. 멜로드라마의 모성 신화와 낭만적 사랑

### 2-1. 은향과 환승의 감정 묘사 방식

<언니는 살아있다>에서 민들레, 김은향, 강하리는 각자 싸워야 할 적에 대한 복수를 매개로 서로에게 의지하고 연대한다. 은향은 대기업 비서 출신이었지만, 태수와 결혼하고 나서 전업주부의 길을 걸었다. 딸 이름을 향한 은향의 사랑은 누구보다도 열성적이었다. 그러던 어느 날 화재 사고로 인해 딸 이름을 잃게 된 은향은 깊은 슬픔에 빠지고 태수와의 관계도 일그러졌다. 후에 알게 된 태수의 불륜과 불찰 때문에 딸이 죽었다는 사실은 은향이 주체적 여성으로 각성하는 계기가 된다. 은향은 이혼 후 태수와 그의 불륜 상대인 세경을 복수할 치밀한 계획을 세운다. 하지만 딸의 죽음의 일차적 원인은 태수에게 있음에도 불구하고, 첫 복수의 대상으로 태수가 아닌 세경을 택한 것은 이상하다. 이는 남성의 불륜 원인을 여성으로부터 찾는 남성주의적 사고에서 기인한 것 같다.

들레와 하리가 적의 실체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한 채 시청자들에게 답답함을 선사하는 동안 은향은 치밀하고 뛰어나게 세경을 압박했다. 세경의 남편인 환승을 유혹하는 대담한 모습을 보이기도 하고, 가정교사로 들어가 세경의 아들 용하가 세경보다 자신을 더 따르도록 하였다. 은향은 누구보다도 주체적인 여성상을 그리는 인물이었다. 하지만 복수를 위한 과정일 뿐이었던 환승과 용하를 향한 사랑이 은향의 진심으로 이어졌다는 한계가 있다. 결국, 은향도 낭만적 사랑을 꿈꾸는 여성 혹은 깊은 모성의 소유자였을 뿐이다.

가장 불편했던 것은 은향이 끊임없이 자신의 윤리적이지 못한 행동에 대해 성찰하는 반면, 환승은 그렇지 않았다는 점이다. 환승의 불륜은 세경이 용하를 제대로 보살피지 못했다는 점에서 기인한 것으로 묘사되어, 환승이 어머니인 세경보다 더 지극정성으로 용하를 보살피는 은향에게 끌리는 것은 당연했다. 따라서 은향과 환승의 관계는 단순히 남녀 간의 사랑이 아니라, 결혼의 황폐한 진실과 현대 가정의 불안정함을 보여 주는 기제라고 생각한다.

은향의 모습을 통해 자신이 원하는 것을 쟁탈하고자 하는 주체적인 여성의 모습을 그리려 했다면, 아마 그것은 실패한 것 같다. 은향의 분노에서 시작된 유혹이 환승을 향한 진짜 사랑으로 이어짐으로

씨 은향의 이지적이고 합리적인 판단 능력은 흐려진다. 냉철함을 유지하고 도덕규범을 지키려 하지만, 환승과 사랑에 빠지면서 이성이 무너진 것이다. 은향과 환승이 사랑을 나누는 장면에서 나오는 잔잔한 배경음악은 시청자로 하여금 은향과 환승의 행동이 옳은 것으로 여겨지게끔 한다. 게다가 은향은 스스로 끊임없이 갈등하고 윤리적 규범에 벗어나지는 않았는가에 대한 성찰이 이뤄지나, 환승의 행동은 아내가 먼저 불륜을 저질렀으니 정당한 것으로 인정받는다. 환승이 아내가 불륜을 저질렀다는 사실을 알기 전에 먼저 은향과 불륜을 저질렀음에도 불구하고 말이다.

## 2-2. 세경의 불륜과 용하의 모성애 박탈

세경은 대기업 본부장이자 재벌 딸이다. 오직 자신만의 능력으로 이 자리에 올랐으며 아버지인 필모에게도 인정받았다. 하지만 세경의 불륜은 중년 여성의 주체성을 찾는 것보다 탈선이라는 시각에서 접근함으로써 세경의 행위는 나머지 악녀들<sup>1)</sup>과 맞먹을 정도의 죄악이 되었다. 드라마에서 세경의 아들 용하는 춤지 않은 날씨임에도 불구하고 항상 빨간 목도리를 한다. 이것은 엄마 세경의 향을 느끼고 사랑받고 싶은 용하의 욕구가 드러나는 물건이다. 용하는 ‘엄마의 사랑’을 받지 못해 자폐에 걸렸고, 이를 그리워한다. 은향은 용하의 가정교사로 들어가면서 세경을 대신해 ‘엄마의 사랑’을 준다. 세경을 대신한 은향의 사랑을 받고 난 이후부터는 용하가 목도리를 하지 않고 등장함으로써 자폐증 증상의 호전을 보였다. 이는 아이가 행복하게 자라기 위해 모성애는 필수불가결한 것임을 암묵적으로 보여준다.

세경은 한순간에 자식을 제대로 돌보지 않은, 즉 가정적이지 못한 어머니로 전락한다. 환승보다 뛰어난 능력과 재력은 아이를 보살피는 데 아무런 쓸모가 없음을 간접적으로 드러낸다. 물론 용하에 대한 세경의 무관심이 극 중 끊임없이 보이지만, 현대 사회에서 자식을 대하는 남성의 태도도 이와 다를 바가 없다. 환승이 세경보다 가정적이고 아이를 더 많이 돌보는 장면은 가부장적 이데올로기에 대한 비판을 역설적으로 그려내는 것처럼 해석할 수도 있다. 그러나 세경이 자신의 불륜을 반성하고 다시 가정으로 돌아와 보여 주는 용하에 대한 애절한 사랑은 자식과 가까운 곳에서 자식을 보살피고 돌보는 행위는 엄마로서 당연히 수행해야 할 역할로 치부하는 꼴이다.

세경을 향한 은향의 복수는 세경이 용하가 죽었다고 착각하게 만들면서 끝난다. 은향과 마찬가지로 세경도 이성적이고 합리적인 판단력을 갖추었지만, 용하에 대한 사랑 앞에서는 무용지물이었다. 아이를 잃고 나서야 세경은 용하에 대한 모성애를 보이고, 눈물을 흘리며 반성한다. 세경이 모성애를 갖게 된 후로부터 신기하게도 세경은 악역이라고 말하기 부담스러울 만큼 선한 인물로 바뀐다. 은향의 조력자로서 다른 악역에 맞서는 인물로 변화한 것이다. 이러한 서사 구조는 다시 한 번 가정에서 ‘엄마’라는 위치에 대해 강조하고 모성애의 필요성을 굳건히 할 뿐이다.

## 2-3. 들레와 필모의 사랑이 내포하는 남성주의적 시각

들레는 철없는 딸이자 한물간 배우이다. 그를 사랑해주는 것이 바로 필모인데, 그는 유명 대기업 공

1) 악역 3인 중 양달희와 이계화는 실제 사람을 죽이는 흉악한 범죄를 저질렀다.

롱 그룹의 회장이다. 들레와 필모의 나이 차이는 13살로 꽤 큰 편이다. 연애를 시작한 후에도 들레가 필모를 계속 ‘아저씨’라고 부르는 것 또한 매우 불편하다. 그런데도 둘 사이에서 낭만적 사랑이 가능하다는 것은 현대 남성들이 연애 상대로서 지나치게 어린 여성만을 갈구하게 되는 부작용을 낳는다. 반대로 여성들에게는 젊고 예쁘면 돈 많고 자신만 바라보는 ‘순정남’을 만나 행복한 가정을 꾸릴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를 하게끔 한다. 이때 높은 지위의 남성을 선택할 수 있는 여성의 권력이 우위에 있는 것처럼 보여도, ‘남성은 능력, 여성은 외모’를 내세우는 가부장적 이데올로기 안에 갇힌 편협한 생각일 뿐이다.

필모는 자신의 사회적 지위와 권력을 이용하여 들레를 개인 비서로 취직시켜주는데, 이것이 악역 중 한 명인 계화의 분노를 사게 하는 것은 시청자들에게 통쾌함을 준다. 하지만 통쾌함에 가려져서 보이지 않는 실상은 사회적 지위가 높은 남성에게 기대어 자신이 원하는 것을 생취하고자 하는 여성의 모습이다. 인기 없는 한물간 배우였던 들레가 자신의 처지에서 벗어날 수 있는 가장 좋은 기회는 사회적 지위가 높은 남성 ‘필모’와의 결합이었다. 들레가 계화에게 복수한 것은 얼핏 보면 들레가 주체적으로 해낸 것처럼 보이지만, 이것은 결국 필모의 도움을 받아 이뤄낸 성과이다. 여성이 무언가를 성취하기 위해서는 남성의 도움이 필요하다는 사고 역시 가부장적 이데올로기를 유지하고 강화하는 데 일조한다고 볼 수 있다.

### 3. 멜로드라마를 비판적으로 수용해야 하는 이유

멜로드라마의 모성 신화나 낭만적 사랑은 결국 여성은 가부장적 구조 내에서만 자신의 꿈을 펼칠 수 있다는 것을 암시한다. 이에 남성들은 자신들도 남성성과 사회적 지위를 강요당한다고 반론을 제기한다. 대표적인 예시 중 하나가 여성이 데이트 비용을 내지 않는 것이지만, 이 또한 우리 사회가 가부장적 사회이기 때문에 생기는 일이다. 가부장적 사회에서 여성은 남성의 부속품이다. 여성에게는 경제권이 없었고 여성은 남성이 소유하는 존재일 뿐이었다. 이런 사회에서 데이트란 여성이 경제권이 없다고 가정한 채 실행된다. 남성의 경제력을 통해서만 여성이 돈을 쓸 수 있는 사회가 바로 가부장적 사회인 것이다. 사회는 여전히 남성에게만 지극히 관대하다. 예를 들어 실제 음란물 유포를 방치하는 수많은 남성주의 사이트들보다 위마드가 먼저 표적이 된 이유는 ‘남성들은 원래 그렇다’라는 인식이 당연하기 때문이다. 가부장적 사회는 남존여비의 구조이기 때문에 남성이 억압받는 사회 구조가 아니다. 남성들이 자신들도 차별받는다 주장하는 것들은 남성이 ‘만들어진 남성성의 특권’을 누리기 위해 치러야 할 비용인 것이다. 이는 여성이 받는 억압과는 차원이 다르다. 차별을 없애고 싶다면 가부장제를 부수려고 노력하면 된다. 따라서 남성과 여성의 권리가 동등해져서 모두가 행복한 사회를 이루고자 하는 과정에 페미니즘이 필요하다.

나는 여성이기 때문에 내가 행동하는 것이 무엇이든 그것이 바로 여성스러운 것이다. 그러나 가부장제 사회는 여성성과 남성성을 제멋대로 규정해서 여성을 억압한다. 가부장제의 억압을 받는 여성은 가부장제를 부수려 하지만, 가부장제의 억압을 받는 남성은 ‘나도 힘든데 네가 왜 그렇게 불만이 많으냐’

는 식으로 여성을 비난하기 바쁘다. 여성으로서 가부장적 이데올로기에서 벗어나는 방법은 남성 기득권의 교묘함을 알아차리는 것이다. 영화나 드라마 속 여성의 모습과 나를 분리해서 생각해서는 안 된다. 그것이 결국 '여성'인 나에 대한 사회적 시선이기 때문이다. 최근 영화 '미쓰백'이 모성애가 아닌 연대의 감정을 중심으로 서사를 이끌어갔으나, 지극히 남성적인 작품들에 비해 흥행하지 못했다는 한계가 있다. 여성들이 여성 서사에 더 관심을 갖지 않는다면 영화나 드라마를 통해 가부장적 사고방식은 더 발전하여 지배 관계를 굳건히 할 것이다. 즉 가부장적 이데올로기를 기반으로 한 수많은 멜로드라마를 비판적으로 수용해야 한다.